

HOME > 로컬+ > 대구경북 > 로컬이슈

농어촌공사 포항·울릉지사, 농촌 집 고쳐주기 활동 펼쳐

배달형 기자 | 승인 20220505 13:56 | 댓글 0



(사진=농어촌공사 포항·울릉지사)

한국농어촌공사 포항·울릉지사는 지난 4일 청하면 고현길에 위치한 이모씨(76세)의 집을 찾아 ‘농촌 집 고쳐주기’ 활동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.

이번 농촌 집 고쳐주기활동은 ESG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평소 노후된 화장실로 인해 불편함이 있었던 대상가구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.

농어촌공사 직원들은 공사전 주변환경 정리를 하고 굴삭기 등의 장비를 활용해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.

장현문 지사장은 “앞으로도 지역상생 발전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복충전활동을 실시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[신아일보] 포항/배달형 기자
bdh2523@hanmail.net

저작권자 ©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